

'월드 투어' 등용문... 빛고을 코트 '별'들이 뜬다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19-26일 진월국제테니스장서 열린

권순우·정현·박의성·제임스 덕워스 등 30개국 200여명 참가 MZ세대 테린이대회·국가대표 팬사인회...다양한 경품 행사

광주에서 '한국 테니스 간판' 권순우와 정현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회가 열린다.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 대회(이하 광주오픈)가 오는 19-26일 진월국제 테니스장에서 개최된다.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 광주시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올해로 9회째 맞는 '광주오픈'은 월드 투어 대회로 진급하기 위한 테니스 유망주들의 필수 등용문이다.

총상금 10만7천달러 규모의 이번 대회 단식 우승자에게는 75점의 랭킹 포인트와 1만7천달러의 상금이 주어진다. 복식 1위는 4천9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때문에 세계 랭킹 100-300위 사이의 선수들에게는 그랜드슬램 진입 및 투어 100위내로 진입에 도움이 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만한 국내 선수로는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권순우(국군체육부대)와 정현(김포시청)이다.

군 복무 중인 권순우(ATP 단식 338위)는 한국 선수 최초로 ATP 투어 단식 2회 우승(2021년 9월 아스타나오픈·2023년 1월 에틀레이드 인터내셔널 2차 대회)를 차지했고, 챌린저 대회 단식

에서 4회 우승 경력이 있는 한국 대표팀의 에이스다.

그는 지난 1월 베트남에서 열린 ATP 노바월드 판티엣 챌린저 단식에서 우승하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권순우가 챌린저급 이상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2023년 1월 호주 에틀레이드 ATP 투어 대회 이후 처음이다.

지난 2월에는 한국 부산 기장체육관에서 열린 2026 데이비스컵에서 아르헨티나 트룬젤리티와 티란테를 꺾고 한국의 첫 퀸리파이어 2라운드로 가는 데 기여해 이번 대회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높다. 권순우는 와일드카드를 받아 단식 본선에 나선다.

정현(ATP 단식 549위)은 2013 워imbledon 주니어 단식 준우승, 2017 넥스트 제너레이션 ATP 파이널 우승, 2018 호주오픈 4강, 2019 US 오픈 3회전, 2025 ITF 국제대회 우승 등 세계 무대에서 실력을 입증한 선수다. 지난 2월 2026 데이비스컵에서는 국가대표로 활약하며 한국의 2라운드 진출 패거리를 거두며 경기력을 끌어 올리고 있다. 정현도 와일드카드를 받아 단식 본선에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 단식 16강과 복식 8강에 올랐던 '구레 출신' 박의성(ATP 716위·대구시청)은 와일드카드를 단식 본선과 복식에 참가한다.

정윤성(ATP 949위·국군체육부대)과 신우빈(ATP 643위·국군체육부대), 추석현(ATP 938



'월드투어 등용문'인 2026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테니스대회가 오는 19일부터 8일간 빛고을 코트를 달군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 테니스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들이 대거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왼쪽부터 권순우, 박의성, 남지성, 정윤성 <광주시테니스협회 제공>

위·국군체육부대), 안석(ATP 949위·한국산업은행), 남지성(ATP 760위·당진시청) 등도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해외 선수로는 올해 멕시코시티 챌린저에서 우승한 제임스 덕워스(호주·세계 86위), 도미니카공화국 캡 카나 챌린저 3위 에담 윌튼(호주·세계 111위), 일본 유키카즈 챌린저 32강 쇼시마부쿠로(일본·세계 112위), 산 루이스 포토시 챌린저 4강 트리스탄 스킴케이트(호주·세계 116위), 캡 카나 챌린저 8강 콜맨 윙(홍콩·세계 125위) 등이 참가해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대회는 19-20일 남자 단식 예선전, 20-21일 남자 단식 본선전, 21-23일 남자 복식 본선전, 24일 남자 복식 준결승, 25일 남자 단식 준결승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단식 49경기(예선 18, 본선 31)와 복식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복식 결승전은 25일 오후 1시 30분경에 치러진다. 단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26일 진행된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 광주오픈기간동안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도 동시 개최한다.

오는 25일 여성동호인대회, 26일 MZ세대를 위한 테린이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이 경기는 물론

다양한 경품추첨 등을 통해 광주오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오픈 대회기간 중 정현, 권순우, 박의성, 신우빈 등이 참여하는 현직 국가대표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광주오픈에 국가대표를 포함 국내 우수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세계 우수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 선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15일 염주체육공원에서 열린 '염주씨름장' 개장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광주 씨름 육성학교 교장, 선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빛고을 씨름 숙원 '염주씨름장' 본격 개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대한씨름협회 감사패 수상

빛고을 씨름인들의 숙원사업인 '염주씨름장'이 본격 개장했다.

광주시체육회는 15일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 박승열 광주씨름협회 회장을 비롯해 '광주 씨름 육성학교' 전장식 화장남초 교장, 최대옥 서산초 교장, 김성섭 광주중 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염주씨름장' 개장식을 개최했다.

염주씨름장은 기존 간이 씨름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훈련 여건을 높이기 위해 조성됐다. 사무실, 선수 휴식 공간 등을 증축했으며, 경기장 외부 풀딩도어를 설치하는 등 쾌적한 훈련환경을 갖춘 최신시설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광주시체육회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사업비 5억7천만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3192㎡ 규모의 전용 훈련장을 조성했으며

며 샤워실 및 탈의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했다.

전용 씨름장 개장으로 빛고을 씨름선수들의 체계적인 선수 육성과 전지훈련 유지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우리 고유의 전통 스포츠인 씨름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매우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학교체육 활성화와 전문 선수 육성은 물론 생활체육 저변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개장식에서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대한민국씨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준희 대한씨름협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사진)

이번 감사패는 전갑수 회장이 취임 이후 광주 씨름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온 점이 높이 평가됐다. /박희중기자



전갑수 회장은 취임 이후 광주 씨름의 숙원사업이었던 훈련장 확충 문제를 광주시와 협의의 통해 해소했고, 장흥에서 열린 제2회 대통령기 전국장사씨름대회에 참가한 광주선수단을 직접 격려하는 등 전통 스포츠인 씨름 중흥의 육성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

특히, 우수선수 및 전문체육지도자 지원, 유소년 씨름단 지원, 염주씨름장 증축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씨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희중기자

류지현 감독, AG 야구대표팀 감독 내정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야구대표팀을 17년 만에 8강으로 이끈 류지현(54) 감독이 2026 아시안게임 아시아게임(AG) 야구대표팀 지휘봉도 잡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5일 "올해 연령별 국제대회에 파견할 야구 국가대표 지도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류지현 감독을 아시아게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적격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지난 10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기력향상위원 편성 평가를 실시했다. 여기에서 류 감독은 국가대표 운영 계획의

구체성과 분석 능력, 통솔력 등 평가 지표 전반에서 긍정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협회는 향후 이사회를 통해 류 감독 선임안을 의결하고,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지도자 승인을 거쳐 류 감독을 야구 국가대표 사령탑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 야구는 아시안게임 야구에서 2010 광저우 대회부터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까지 4회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광주교통공사 황수련·이주연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 '금메트'

광주교통공사 유도팀 황수련과 이주연이 2026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황수련은 지난 15일 강원도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여자일반부 -52kg급 결승에서 이본(제주특별자치도청)을 상대로 소매업어치기 절반과 누르기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황수련은 앞서 8강전에서 김지현(동해시청)에게 기권승, 준결승에서 한수연(포항시청)에게 안다리후리기 한판승을 거두고 결승에 진출했다.

-63kg급에 출전한 이주연은 16강을 부전승으로 통과한 후 8강전에서 김도연(동해시청)에게 윗누르기 유효승, 준결승에서 김유정(성동구청)을 상대로 업어치기되치기 절반승을 거두고 결승에 올라 허슬미(안산시청)에게 모두



2026 양구평화컵전국유도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주연(왼쪽)과 황수련. <광주교통공사 제공>

걸기 유효승으로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박희중기자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 '도내 3번째' 문체부 공모 지정스포츠클럽 선정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이 2026년 신규 지정스포츠클럽에 선정됐다.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15일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 '2026년 신규 지정스포츠클럽' 공모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지정은 전국 시·군·구 등록스포츠클럽 중 전문적인 사업 수행 능력과 표준화된 운영체계를 갖춘 우수 클럽을 엄선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은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역량을 증명했다.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은 론볼, 당구, 배드민턴 총 3개 종목 운영하며 공공스포츠클럽으로서 쌓아온 행정 안정성과 양호한 시설 환경, 적절한 예산 관리 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지방비 확보와 회원 회비 운영을 통해 자생력을 갖춘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은 올해 확보한 4천 800만 원의 예산을 시작으로 3년간 운영비를 지원받으며, 전문선수 육성과 장애인특별 특성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해 선정된 순천어울림스포츠클럽과 여수마루빛스포츠클럽에 이어 올해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이 지정스포츠클럽에 선정돼 도내 장애인스포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박정현 전남도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광양시장에인스포츠클럽이 내실 있는 경영을 바탕으로 정부 공모 지정에 선정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광양시장에인들이 보다 체계적인 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 차원에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